



[대한국사-윤승규]

2017년 지방직 7급 한국사 총평 및 해설

(㉔책형)

총 평

2017년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시대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에서 1문항, 고대사(삼국~남북국)에서 4문항, 중세사(고려)에서 3문항, 근세~근대 태동기(조선사)에서 5문항, 통합 1문항, 근현대사의 한말에서 2문항, 일제 강점기(독립운동)에서 2문항, 해방 이후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다.

또한 분류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선사를 포함한 정치사의 비중이 11문항, 경제사 3문항, 사회사 4문항, 문화사 2문항이 출제 되었다.

대체로 평이한 난이도 하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으며, 어려운 문제는 대략 3~4 문항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방 이후 교육제도의 변화 양상, 입법 기구인 남조선 과도 입법 위원 문제, 대가야의 우륵, 독도와 이승만 라인 정도가 어려운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쉬웠다고는 하나 최근의 출제 방식은 기출문제에 의존한 학습 방식으로는 고득점을 얻을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기출 문제 분석으로 최대 60~70% 정도의 출제 형식을 잡아낼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신경향의 학습과 문제 풀이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의 학계 동향에 의해 교과서 및 역사서의 집필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기초적인 학습 외에 새로운 관점을 가미한 다양한 내용의 섭렵이 필요하다. 이것은 새로운 김인정 교과서의 분석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문제집이나, 교재를 활용하는 것으로 허점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유형 분석

분류사 시대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계
선사	•삼한				1
고대	•대가야 •발해	•삼국의 교역	•6두품·화백회의		4
중세	•수령 7사 •몽골 침입기의 사건		•고려 사회의 특징		3
근세 ~근대 태동기	•세종 재위기의 사실	•과전법 시행 이후 •조선 후기의 상황	•조선 후기의 신분 계	•정약용의 저서	5
한말	•을사의병·13도 창의군		•활빈당		2
일제	•대한민국 임시 정부			•한국사의 연구	2
현대사	•시기별 교육 정책 •남조선과도입법의원				2
통합형	•독도				1
계	11	3	4	2	20

문제 및 해설

문 1. ㉑~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㉑)은 한국 민족사의 주체적 발전과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민족 정신을 중시하고 이를 고취시켜 독립을 이룩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박은식, 신채호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 (㉒)은 사회구상체 발전 단계론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민중에게서 구했으며, 우리 역사를 유물사관의 방법론에 맞추려고 하였다. 백남운, 이 청원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 (㉓)은 순수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을 지향하며 문헌 고증을 중시하였다. 이병도, 손진태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 | | | |
|----------|--------|--------|
| ㉑ | ㉒ | ㉓ |
| ① 민족주의사학 | 사회경제사학 | 실증사학 |
| ② 실증사학 | 민족주의사학 | 사회경제사학 |
| ③ 민족주의사학 | 실증사학 | 사회경제사학 |
| ④ 사회경제사학 | 실증사학 | 민족주의사학 |

정답 ①

정답해설

- ㉑ 민족주의사학은 역사 연구를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인식하여 우리 민족의 자율성과 주체성, 한국사의 자주적 발전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단군을 중시하고, 발해사를 한국사로 정립하고, 실학을 조선학으로 연구하였다. 대표적인 인물 중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역사 주체로서의 민족을 선명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반식민주의적 관점을 분명히 해 주체적인 한국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박은식은 한 나라의 국교(國敎)와 국사(國史)가 없어지지 않으면 나라도 결코 망한 것이 아니라는 신념 아래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해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한국통사』를 서술하였다.
- ㉒ 1920년대 후반, 사회주의 이념의 확산으로 노동자·농민 운동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유물사관으로 한국사의 발전 과정을 탐구하려는 사회·경제사학이 등장하였다. 한국사가 서계사의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해 왔음을 강조하여 식민사학의 경제성 이론을 비판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인 백남운은 『조선사회경제사』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에서 역사주의 경제학 입장에서 조선사회 경제성을 주장하였던 식민주의자들의 논리를 유물론의 ‘세계사적인 일원적 역사법칙’에 따라 공격하였고, 이청원은 『조선사회사독본』에서 사적유물론을 기반으로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된 한국사상을 비판하였다.
- ㉓ 실증사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병도와 손진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문헌 고증의 자세로 우리의 역사·문화·언어 등을 연구하여, 식민사학의 타율성론, 단군 조선 부정 등을 비판하였다.

문 2. 몽골 침입 시기에 발생한 사건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망이·망소이, 만적 등이 봉기하였다.
ㄴ. 강화도 천도에 대해 삼별초가 반대하였다.
ㄷ. 황룡사 구층목탑과 초조대장경이 불에 탔다.
ㄹ. 김윤후와 처인 부곡민들이 몽골 장수 살리타 군대를 물리쳤다.
ㅁ.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팔만대장경을 조판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정답 ④

정답해설

- ㄷ. 황룡사 구층목탑은 몽골의 3차 침입, 초조대장경은 몽골의 2차 침입 시기에 불에 타 소실되었다.
- ㄹ. 몽골의 2차 침입 시기 몽골군은 용인의 처인성에서 승리 김윤후가 지휘하는 고려 농민군의 화살에 맞아 살리타가 사살되는 등 패전을 거듭하였다.
- ㅁ. 몽골의 3차 침입 시기인 1236년에 최우를 비롯한 고려의 지도층은 부처의 가호로 적군을 물리치고자 새로운 대장경인 팔만(재조)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하였다.

오답해설

- ㄱ. 망이·망소이의 난과 만적의 봉기는 몽골의 침입 이전인 무신집권 초반기에 일어난 일이다.
- ㄴ. 삼별초는 강화도 천도가 아닌 개경 환도에 반대하여 대몽 항쟁을 전개하였다.

문 3. 고려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여성은 재혼이 가능하였다.
ㄴ.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었다.
ㄷ. 부모의 재산은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고르게 상속되었다.
ㄹ. 결혼할 때 여성이 데려온 노비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귀속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②

정답해설

- ㄱ, ㄷ. 고려 시대 여성들은 남편과 사별했을 때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었으며, 자녀균분상속으로 여성들은 남성과 거의 동등한 정도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오답해설

- ㄴ. 고려 시대에는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었으나, 조선 중기인 17세기 이후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확립되어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없었다.
- ㄹ. 고려의 여성은 자신이 결혼할 때 가져갔던 재산들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남편보다 먼저 죽을 경우 여자의 재산은 본가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노비나 토지 등 재산의 출처를 밝히는 경우는 드물게 되었다. 이 역시 가부장적 의식이 정착하면서 남녀가 하나의 가계를 이루면 여자는 남편 가계의 구성원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4.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긴다.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 ① 명주와 삼베를 짜는 방직기술이 발달하였다.
- ② 고구려와 풍속이 달랐고 민머느리제가 있었다.
- ③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 ④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였다.

정답 ①, ③

정답해설

제시된 사료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삼한이다. 풍년을 기원하고 추수를 감사하는 것으로서 씨뿌리기가 끝난 5월 계절제, 10월 계절제가 열렸다. 씨족 공동체 사회의 풍습을 계승한 농경 사회의 추수 감사제로 이때는 온 나라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며 즐겼다.

- ①, ③ 가답안에는 ③만 답이라고 나와 있으나, 명주와 삼베를 짜는 방직기술의 발달은 동예와 삼한의 공통점에 해당하므로 복수정답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한서』에는 예와 한에서 양잠을 하고 명주와 삼베를 짠다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동예, 마한, 변한에서의 방직기술 발달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삼한의 여러 나라는 대체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천신(天神)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인 천군이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했다.

오답해설

- ② 옥저, ④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문 5. 우리나라의 시기별 교육 변화 양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60년대 -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다.
- ② 1970년대 - 처음으로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연합고사로 바뀌었다.
- ③ 1980년대 - 학교 교육과 별개로 사교육인 과외가 활성화되었다.
- ④ 1990년대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었다.

정답 ③

정답해설

- ③ 1980년 7월에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7·30 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재학생의 과외 교육 및 입시 목적의 재학생 학원 수강을 금지하였다.

오답해설

- ①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1969년부터 시행되었다.
- ② 고입선발고사인 연합고사는 1974년부터 실시되었으나, 2018년 폐지될 예정이다.
- ④ 1994년 제1차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었다.

문 6.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금께서 말하기를, “칠사(七事)라는 것은 무엇인가?”하니, 변정원이 대답하기를, “농상(농사와 양잠)을 성하게 하는 일, (㉠)을/를 일으키는 일, 소송을 간략하게 하는 일, 간휼(간사하고 교활함)을 없애는 일, 군정(軍政)을 닦는 일, 호구를 늘리는 일, 부역을 고르게 하는 일이 바로 칠사입니다.”라고 하였다.

『성종실록』

- ① 유학에 힘쓰게 한다.
- ② 도적이 없게 한다.
- ③ 호적을 정리하고, 군역과 요역을 감독한다.
- ④ 중앙의 명령을 전달한다.

정답 ①

정답해설

제시문은 『경국대전』에 실린 조선 초기 지방 수령의 임무를 나타내는 수령 7사에 대한 기록이다. 수령 7사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수령 7사(『경국대전』)

- 1. 농사철에 맞추어 씨를 뿌리게 할 것(농상흥)
- 2. 유생에게 경전을 교육하고 제술을 시험하여 유학 및 문학에 정진을 도모할 것(교육흥)
- 3. 법을 잘 지켜 민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 줄 것(사송간)
- 4. 용모를 잘 관찰하여 간사스럽고 교활한 자를 없앨 것(간휼식)
- 5. 때를 맞춰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기강을 엄히 할 것(군정수)
- 6. 백성들을 편하게 일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이 모여 들게 할 것(호구증)
- 7. 부역을 시키는 데 차별 없이 공평하고 균등하게 부과할 것(부역균)

문 7. 밑줄 친 ‘입법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3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 2. 마·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發)할 것.
-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채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
- 4. …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케 하여 실시케 할 것. … 후략

- ① 「입법의원 의원선거법」을 제정하였다.
- ② 초대의장으로 여운형이 선임되었다.
- ③ 관선과 민선 두 종류의 의원이 있었다.
- ④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정답 ②

정답해설

제시된 자료는 ‘좌우 합작 7원칙’의 조항으로, 밑줄 친 입법기구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다. 좌우합작 7원칙의 제6항의 합의에 따라 미군정은 1946년 10월 12일 군정법령으로 「조선 과도입법원의 창설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여 10월 중에 민선의원 45명이 선출되고, 11월 18일부터 관선의원 45명의 심사가 이루어져 12월 12일 입법원의 개원을 보게 되었다.

- ② 초대의장으로는 김규식이 선임되었다.

오답해설

- ①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입법의원 의원선거법」을 비롯하여, 「미성년자 보호법」,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 「미국 수집령」, 「사찰령 폐지에 관한 법령」 등을 제정하였다.
- ③ 관선 45명, 민선 45명의 두 종류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 ④ 1947년 7월 2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미군정의 인준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다.

문 8. 세종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 ㄴ. 삼포에 대한 조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자, 삼포왜란이 일어났다.
- ㄷ. 김종서를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하여 두만강 유역에 6진을 개척하였다.
- ㄹ. 압록강 방면에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지자, 최윤덕을 파견하여 그들을 토벌하였다.
- ㅁ. 쓰시마 도주(島主)와 계해약조를 맺어 연간 50척의 세건선을 파견할 수 있게 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ㄹ, ㅁ
- ④ ㄴ, ㄷ, ㄹ, ㅁ

정답 ③

정답해설

- ㄱ. 세종 때인 1419년 왜구의 약탈이 계속되자 이종무로 하여금 쓰시마 섬을 정벌하게 하였다.
- ㄷ. 1433년 여진족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자 세종은 김종서를 함길도 도절제사로 임명하고 6진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복진 정책을 펼쳤다.
- ㄹ. 압록강 방면에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지자, 세종은 1433년 최윤덕을 평안도 도절제사로 삼아 여진을 벌하고 4군을 설치하였다.
- ㅁ. 1443년 세종은 3포 개항에 이어 계해약조를 체결하여 세건선 50척 이내, 세사미 200석 이내로 교역을 허락하면서 지나치게 늘어난 무역 규모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오답해설

- ㄴ. 삼포왜란은 1510년, 중종 5년에 일어났다.

문 9. 다음 자료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대사헌 조준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 … 근년에는 (토지를) 겸병하는 일이 더욱 심해져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의 토지가 주(州)에 걸치고 군(郡)을 포괄하며, 산천을 경계로 삼을 정도입니다. 1부(畝)의 주인이 5, 6명이나 되고 1년에 조세를 받는 횡수가 8, 9차에 이릅니다. 위로는 어분전(御分田)부터 종실·공신·조정·문무관의 토지, 외역·간·역·관의 토지와 백성들이 여러 대 동안 심은 뽕나무와 지은 집에 이르기까지 모두 빼앗아 차지하니 호소할 곳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떠돌아다닙니다.”

- ① 전시과를 공포하여 전제개혁을 단행하였다.
- ② 전제개혁으로 신진사대부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 ③ 이성계에 반대하는 신하들에게는 토지를 분배하지 않았다.
- ④ 과전 지급 지역은 경기에 한정되었고, 지급 대상은 전직, 현직 관리였다.

정답 ④

정답해설

자료는 『고려사』 식화지에 나오는 고려 말 수조권의 문란에 대한 조준의 상소이다. 고려 말에는 무신 정변 이후 전시과의 붕괴와 농장의 확대로 대토지 점유 현상이 나타나 토지 제도의 문란이 심화되었다. 원 간섭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토지에 대한 지배층의 불법적 토지 겸병은 더욱 확대되었고, 토지 겸병으로 등장한 농장은 국가 재정과 민생을 모두 위협하였다. 결국 권문세족의 농장 확대로 농민이 몰락하고 국가 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④ 고려 말 문란했던 경제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권문세족의 농장을 해체하고 국가 제정과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과전법은 전·현직 문무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분급하였는데, 죽거나 반역을 한 경우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오답해설

- ① 전시과는 고려 경종 시기 처음 시행된 토지 제도이다.
- ②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③ 과전법은 1391년에 시행될 당시의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되었다.

문 10. ㉠~㉣에 들어갈 책의 이름이 옳은 것은?

- (㉠)에서는 『주례』에 나타난 주나라 제도를 모범으로 하여 중앙과 지방의 정치체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 (㉡)는 수령들이 백성을 수탁하는 도적으로 변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백성을 기르르는 목민관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한 일종의 수신교과서이다.
- (㉢)는 백성들이 억울한 벌을 받지 않도록 형법을 신중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은 책이다.

㉠	㉡	㉢
①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②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③ 흠흠신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④ 경세유표	흠흠심서	목민심서

정답 ①

정답해설

- ㉠ 『경세유표』는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하여 관제·토지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 원리를 제시한 정약용의 저서로, 원제명은 『방례초본』이다. 『주례』의 이념을 근거로 하면서 당시 조건의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정치·경제·사회제도를 개혁하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지어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하였다. 수령에 대한 봉사 정신과 전정·세법·부역의 균등과 민(民)의 입장에서 부정부패 개혁을 주장하였다.
- ㉢ 『흠흠신서』는 한국 최초의 율학 연구서로 평가받고 있는 정약용의 저술로, 죄수에 대한 재판 방법과 『대명률』, 『경국대전』의 형벌 규정과 모범적 사례와 판례를 정리하여 요약·논술하였다.

문 11.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에 외국 상인의 출입을 엄금할 것
- 다른 나라에 철도부설권을 허용하지 말 것
- 시급히 방곡령을 실시하고 구민법을 채용할 것
- 금광의 채굴을 금지하고 인민의 방책을 꾀할 것

- ① 정치작·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단결을 공고히 함을 강령으로 삼아 투쟁하였다.
- ② 1900년 전후 충청과 경기, 낙동강 동쪽의 경상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 ③ ‘가난한 사람을 살려내는 무리’라는 뜻으로 『홍길동전』에서 이름을 따왔다.
- ④ 을사늑(조)약 이후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의병운동에 참여하였다.

정답 ①

정답해설

제시문은 활빈당(活貧黨)이 행동강령으로 발표한 ‘대한 사민 논설 13조’의 내용이다. 활빈당은 1900년부터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지역과 소백산맥 부근에서 활동하였으며 주로 행상, 유민, 노동자, 화적 등 대부분 빈민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관리와 양반 부호들의 무능과 수탈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부호와 관청, 장시 등을 습격하여 무기와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그 일부를 빈민에게 나누어 주는 등 의적으로 행세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정부에 구민법 시행과 토지 균등 분배 등을 요구하고 외세 침탈에 저항하였다. 1904년 한일의정서가 체결된 뒤 활빈당의 투쟁은 의병운동 대열에 흡수되어 반일무장투쟁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 ① 신간회(1927)의 강령이다.

문 12. 다음 (가), (나)에 나타난 신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속성은 김씨로 태종무열왕의 8대조이다. 할아버지인 주천의 골품은 진골이고 … 아버지는 범청으로 골품이 진골에서 한 등급 떨어져 득난(得難)이 되었다.
『성주사낭해화상백월보광탑비문』
- (나) 최치원은 난랑비(鸞郎碑) 서문에서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風流)라 일컬었다. … 실로 이는 삼교(유·불·선)를 포함하고 중생을 교화한다.
『삼국사기』

- ① (가)－개인의 사회 활동과 일상생활을 규제하였다.
- ② (가)－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
- ③ (나)－진흥왕 때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 ④ (나)－귀족들이 회의를 통하여 중요한 국사를 결정하였다.

정답 ④

정답해설

- (가)는 신라의 골품제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문의 ‘득난’은 6두품을 일컫는다. (나)는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에 기록된 화랑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 ④ 신라의 화백 회의에 대한 설명이다. 화백 회의는 국정을 좌우하는 특성의 회의로 진골 귀족인 대등들이 모여 귀족들의 단결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었다.

오답해설

- ① 신라의 골품제는 신분에 따른 개인·사회 생활·정치 활동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가옥 규모, 장식물, 복색, 수레 크기 등의 일상생활에서도 규제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 ② 신라의 관등 조직은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상한선을 두었고, 이에 따른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아찬·대나마·나마에 중위제를 두었다.
- ③ 화랑도는 인재 양성의 교육적 기능과 국가 위기시 전사단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여러 계층이 한 조직 속에 편입되어 계급 간 대립과 갈등을 완화·조절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문 13.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 ㄴ.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형태를 갖추었으나, 국내와는 연결된 적이 없었다.
- ㄷ.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해, 한성(서울) 등 세 곳의 임시정부가 협력하여 구성하였다.
- ㄹ.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주로 독립 운동에 관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②

정답해설

- ㄱ.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제1차 대전 후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였으며, 워싱턴 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전달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ㄷ. 1919년 한성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상해와 연해주의 정부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 ㄹ. 임시 정부는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하고, 국제 정세, 임시 정부 활동 등을 국내외 동포에게 알리려 하였다.

오답해설

- ㄴ. 임시 정부는 국내와의 연결을 위해 비밀 행정 조직으로서 연통제를 두어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지휘·감독하였다. 또한 임시 정부는 통신 기관으로 각 군에 교통국, 각 면에 교통소를 설치하여 정보의 수집·분석·교환·연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국내에는 부산의 백산상회를 교통국의 거점으로 삼았다.

문 14. 조선 후기의 시대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작을 통해 부농이 될 수 있었다.
- ② 광산 경영 방식에서 덕대제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 ③ 『금양잡록』, 『농서집요』 등의 농서가 간행되었다.
- ④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독립 수공업자들이 나타났다.

정답 ③

정답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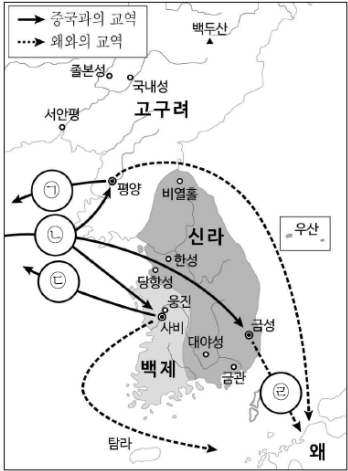
- ③ 『금양잡록』은 강희맹이 경기도 금양현에서 그곳의 농민들과의 대화와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지은 책으로 성종 시기 완성(1475~1483)되었다. 총 80품종의 곡식작물을 분류하여 설명하였고 품종의 이름이 한자명과 이두 및 국문명으로 병기되어 있다.
『농서집요』는 1517년 중종 시기에 편찬된 농서로 『농상집요』의 농법의 일부를 발췌하고, 한국식 농법의 특성을 이두문으로 기록한 것이 특성이다. 다른 농서가 『농사직설』을 대부분 인용한 것과 달리, 『농서집요』의 한국식 농법은 당시 새롭게 등장한 농법을 주로 수록하고 있다.

오답해설

- ① 조선 후기 이양법의 실시로 광작이 가능하게 된 농민들은 경작 규모의 확대, 영농 방법의 개선, 상품 작물의 재배 등을 통하여 부농이 되었고 일부는 경영형 부농으로 성장하였다
- ② 조선 후기에는 광산 개발 방식에도 변화가 생겨 ‘덕대’라는 경영 전문가가 등장하여 상인 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인 혈주(穴主)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산을 운영하였다.
- ④ 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면서, 놋그릇, 농기구, 모자, 장도 분야에서 생산과 판매까지 주관하는 독립 수공업자가 나타났다.



문 15. 다음은 삼국의 주요 대외 교역 물품을 표시한 지도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 : 도자기, 비단, 서적
- ㉡ ㉡ : 인삼, 직물류
- ㉢ ㉢ : 금, 은, 모피류
- ㉣ ㉣ : 곡물, 비단

정답 ④
정답해설

고구려는 중국에 금·은, 모피류를 수출하였고, 왜로 해표피, 모피류 등을 수출하였다. 백제는 중국에 인삼, 직물류를 수출하였으며, 왜에 곡물, 직물류 등을 수출하였다. 신라는 왜에 곡물, 비단을 수출하였다.
한편 세 나라 모두 중국으로부터 비단, 서적, 도자기 등을 수입하였다.
따라서 ㉠은 금·은 모피류, ㉡은 비단·서적·도자기, ㉢은 인삼·직물류, ㉣은 곡물·비단에 해당한다.

문 16.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인안, 대흥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ㄴ. 중앙 관제로 당과 비슷한 3성 6부제를 시행하였다.
- ㄷ. 동해안을 따라 신라에 이르던 교통로를 ‘신라도’라 하였다.
- ㄹ. 무왕은 스스로 전륜성왕이라 자처하고, 일본에도 사신을 파견하였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③
정답해설

ㄱ. 발해의 무왕은 ‘인안’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대외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천명하였다. 문왕은 ‘대흥’을 연호로 정하였으며 774년(대흥 38)에 ‘보력’으로 고쳐 7년 정도 사용하다가 다시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ㄴ. 발해는 중앙 정치 조직으로 당의 3성 6부제를 수용하여 독자적(정당성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ㄷ. 발해 문왕 시기에 발해의 동경 용원부와 남경 남해부를 거쳐 동해안을 따라 신라에 이르던 교통로인 신라도를 개설하였다.

오답해설

ㄹ. 무왕 시기에도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지만, 전륜성왕이라 자처한 왕은 문왕이다. 이밖에도 고대 국가에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을 호태성왕(好太聖王)으로 칭한 것이나, 백제 성왕(聖王)의 생전 칭호 역시 성왕(聖王)인 점, 진흥왕의 두 아들 이름이 동륜과 금륜으로 불린 것 등에서 전륜성왕설을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불교적 이상 국가를 꿈꾸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 17. 조선 후기 신분 변화와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줄어들었다.
- ② 역관은 외래문화의 수용에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③ 서얼은 신분 상승 운동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다.
- ④ 군공이나 납속책 등을 통해 노비의 신분이 상승되고 공노비는 해방되었다.

정답 ③
정답해설

③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납속책과 공명첩의 성행으로 서얼의 관직 진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점차 서얼의 청요직 진출 요구도 거세져 논의가 거듭되었고, 결국 영조 시기에 법제적으로 영조 시기 서얼 허통이 허용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하다가, 철종 시기인 1851년 서얼 허통으로 서얼의 청요직 진출이 허용되었다.

문 18. 밑줄 친 ‘가라(가야)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하여 가라(가야라고도 한다)국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 때 사다함은 나이 15, 6세였음에도 중군하기를 청하였다. 왕이 나이가 아직 어리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으나, 여러 번 진심으로 청하고 뜻이 확고하였으므로 드디어 귀당 비장으로 삼았다. … 그 나라 사람들이 뜻밖에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막지 못하였으므로 대군이 승세를 타고 마침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삼국사기』

- ① 시조는 수로왕이며 구지봉 전설이 있다.
- ② 나라가 망할 즈음 우륵이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로 들어갔다.
- ③ 낙동강 하류에 도읍하고 해상 교역을 중계하였다.
- ④ 국주(國主) 김구해가 항복하자 신라왕이 본국을 식읍으로 주었다.

정답 ②
정답해설

밑줄 친 ‘가라(가야)국’은 대가야이다. 신라 진흥왕은 562년 복속 상태였던 대가야가 백제의 신라 공격에 힘입어 신라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자 이사부를 보내어 대가야를 정복, 멸망시켰다.
② 우륵은 가야국 가실왕(嘉實王, 일명 嘉寶王) 때와 신라 진흥왕 때 악사로 활약한 가야금의 명인이다. 우륵은 가야국이 어지러워지자 가야금을 들고 제자 이문(泥文)과 함께 신라 진흥왕에게 투항하였는데, 왕은 그를 맞아 국원(지금의 충주)에 안치시키고 계고(階古)·만덕(萬德)·법지(法知) 등을 보내어 그의 업(業)을 전습하게 하였다.

오답해설

①, ③, ④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이다.

문 1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칙령 제41호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한다.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을/를 관할한다.

- ①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구분하고, 우산으로 표기하였다.
- ② 숙종 때 안용복은 일본 건너가 울릉도와 더불어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고, 당시 일본에서는 ‘송도(松島)’로 기록하였다.
- ③ 일본 정부는 1870년대에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으면서도, 1905년 국제법상 무주지(無主地)라는 명목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 ④ 1952년 UN군 사령부와 협의하에 이승만 정부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 한국의 영토로 확인하였고, 당시 일본은 이를 묵인하였다.

정답 ④
정답해설

제시문은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정한 1900년 대한제국 정부의 칙령 41호의 내용이다.
④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18일 독도를 영해로 포함하는 ‘이승만 라인’(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선포하자, 일본은 이에 거칠게 반발하였다. 일본은 1월 28일 “미일평화조약의 해석상 일본영토라고 인정된 죽도(우리의 독도)를 이 라인 안에 넣은 것은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 침략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한일간에 영토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같은 해 9월 유엔군사령관 클라크(Clark, M.W.)가 북한의 침투를 막고 전시밀수출입품의 유통봉쇄를 위해 ‘클라크 라인’이라는 해상방위수역을 한국연안해에 선포하였다. 이 클라크 라인이 이승만 라인과 거의 비슷한 수역선이어서 일본과의 어로마찰은 자연적으로 해소되었다. 평화선은 1965년 6월 한일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사실상 철폐되었다.

오답해설

- ①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는 『삼국사기』의 기록(이사부의 우산국 정복, 신라 영토 편입), 『고려사』(지리지 울진현) 조세 징수 기록, 『태종실록』(쇄환 정책),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신증동국여지승람」), 『숙종실록』(안정복의 1·2차 도일 기록), 조선의 이주 정책(1884),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은주시청합기」, 태정관 문서, 일본 시마네현 고시 40호,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등에서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다.
- ② 숙종 시기에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1차 1693년, 2차 1696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특히 안용복의 2차 도일 당시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독도를 조선 영토로 재확인하여 결정하고 문서를 필사 정리하여 태정관에 제출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울릉도와 그 밖의 1도인 송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고 조선 영토로 판단 결정. 그러나 영토에 대한 취사선택은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최종 결정을 국가 최고 기관인 태정관에 요청함.” 이에 대하여 태정관에서는 “품의한 취지의 죽도 외 1도의 건에 대하여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안을 내렸다.
- ③ 1875년에 일본 육군성 참모국이 편찬한 「조선전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하였고, 1876년에 일본 해군성 수로국에서 한반도 침략을 위한 전략 자료로 제작한 「조선동해안도」에도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조선 동해안’에 포함시켜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문 20.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의병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최익현 부대는 순창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보낸 진위대와 대치하게 되자 ... 임금의 군대와 싸울 수는 없다면서 스스로 포로가 되었다.

○ 이인영은 부친상을 당하자 ‘불효는 불충’이라면서 귀가해버려 결국 서울진공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 ① 입헌군주제를 지향하였다.
- ② 관군에 합류하기 위하여 투항하였다.
- ③ 천도교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 ④ 의병장은 주로 양반 유생이었다.

정답 ④

정답해설

제시문은 최익현이 의병장으로 활약한 을사의병(1905~)과 13도 창의군(1907)이 추진하였던 서울진공작전에 대한 내용이다.

- ④ 을사의병 때 평민 의병장이 등장하여 대두되었던 것은 맞지만, 유생층이 의병장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 13도 창의군은 1908년 서울 진공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의병 부대가 횡적인 연합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정미의병(1907~) 당시 평민 의병장이 다수 등장하여 활약하였던 데에 반해 13도 창의군에서는 평민 의병장이 배제되고 이인영, 허위 등의 유생층이 주도하였다.

오답해설

- ①, ②, ③ 의병 운동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